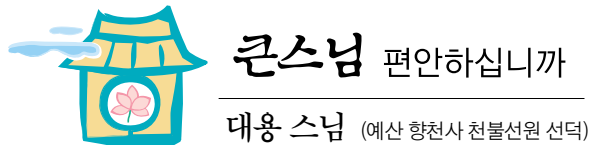


# “평생 쓴 바랑 하나와 전화번호 7개가 전부” 머무름 없이 살아온 50년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대용 스님 (예산 향천사 천불선원 선역)

수행자는 드러내지 않음을 미덕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 나선다. 그 외중에 자신의 뜻과는 달리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이른바 ‘유명 스님’이 되기도 한다. 대단한 결례다. 때문에 큰스님을 찾아뵙고 석 유쾌하지 않은 객(客)이 되어 스님의 일상을 엿보고 법문을 청하는 일은, 개인적으론 마음 설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충남 예산 향천사 열화실에 주석하고 있는 대용 스님(천불선원 선역)을 찾아뵙는 것도 그랬다.

평생 상좌 한 명 두지 않고, 주지 소임 한 번 살지 않은 채 50여년을 대중선방에서 정진하신 대용 스님을 지면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크나큰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가벼운 춘설(春雪)이 내린 3월 2일, 한적한 촌로(村路)를 따라 향천사에 닿았다. 지난해 동안겨에 든 후 갑자기 몸이 불편해진 대용 스님을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 향천사 주지 범광 스님이 기자를 열화실로 안내했다. 스님은 병환으로 인해 시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쇠약해졌지만, 기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형형(炯炯)한 운수자(雲水)의 그것이었다.

조용하던 거처가 취재기자, 사진기자, 동영상 촬영기자 등으로 번잡해짐에 스님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대용 스님을 찾아뵙는 무구 스님(향천사 유치원장)이 곁에서 “예전 같으면 조용히 자리를 물리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가 후 50여년 동안 상좌나 알은제하는 신도 한 명 두지 않으실 만큼 오로지 참선 정진에만 몰두해 왔다는 것이다.

1929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아버지 김봉학, 어머니 하순이 사이에서 태어난 스님은 43년 북강현 전천군 향순심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방과 더불어 귀국했다. 45년 서울 제신학교 우편과를 수료하고 대구시 중앙우체국 사무원으로 재직하다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일등상사로 7년 만기 제대했다.

군 복무 당시 상주 화령 전투에서 전우들을 잃으면서 인생의 근본에 대해 고뇌하며 방황하게 된 스님은 제대 후 복직 대신 불법(佛法)을 찾아 나서는 길을 택했다. 불연(佛緣)을 맺기 위해 여러 사찰을 전전하던 중 사형(師兄)되는 희묵 스님의 안내로 예산 향천사로 옮겨, 58년 보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당시만 해도 제신학교를 수료하면 엘리트라 칭송받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은사 스님으로부터 ‘수행자는 참선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적정처(寂靜處)를 찾아 62년 청암사 수도암을 시작으로 오로지 수좌의 길을 걸었다.

94년 지리산 정각사에서 안거를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향천사 천불선원에서 정진하고 계신 스님은 이번 올유년 동안겨에도 대중스님들과 함께 방부를 들이고 3개월을 마쳤다.

대용 스님을 아는 사람은 끝없는 수행 이력과 함께 ‘무똥똥함’으로 스님을 기억한다. 신도들이나 시자들이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고 하루에 대화 몇 마디도 나누지 않을 만큼 묵언하고 오로지 자기 내면만을 응시해 왔기 때문이다.

“조심부묘하고 어려서부터 혼자 외롭게 자라면서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괜한 인연을 짓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 병석에 든 후부터 조금 달라졌다. 가까이 있는 시자나 간병인이 걱정할까봐 늘 웃으며 “나 때문에 올 것 없다”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공양을 올리는 시자의 손을 잡고 “손이 춥다”며 애뜻한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베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더 많이 많았다면 늘 다른 사람과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붙이며 이렇게 땀을 거예요.”

최근 건강이 나빠지긴 했지만 스님은 세수 7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다.

스님의 건강비결은 소식(小食)과 포행(奉行). 하지만 스님은 남과 시비하지 않고 집착을 버리는 것이 더 큰 건강비결이라고 말한다.

지난 동안겨 해제 전 입승스님이 “저희는 보따리 싸서 내일이면 떠납니다. 저희는 스님의 건강이 열려됩니다”라고 여쭙자 스님은 “나도 보따리 싸는 재미로 살았어. 보따리 싸는 재미가 있던 말이야. 나 참 보따리 많이 싸어”라고 말할 만큼 머무름 없이 살아온 수행이력이 바로 건강의 초석일 것이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걷고 싶으면 걷고,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고, 기차를 타면 버스를 타면 먼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먼 여행을...”

평생 쓴 바랑 하나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 7개가 전부일 만큼 단촐한 스님의 세간을 보며 천불선원 입구에 걸린 ‘대휴문(大休門)’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크게 쉬는 문. 배고프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스님은 저 대휴문을 넘어야 할까?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디 평생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스님의 뜻을 거스른 과중한 기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랄 뿐이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걷고 싶으면 걷고,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고, 기차를 타면 버스를 타면 먼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먼 여행을...”

평생 쓴 바랑 하나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 7개가 전부일 만큼 단촐한 스님의 세간을 보며 천불선원 입구에 걸린 ‘대휴문(大休門)’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크게 쉬는 문. 배고프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스님은 저 대휴문을 넘어야 할까?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디 평생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스님의 뜻을 거스른 과중한 기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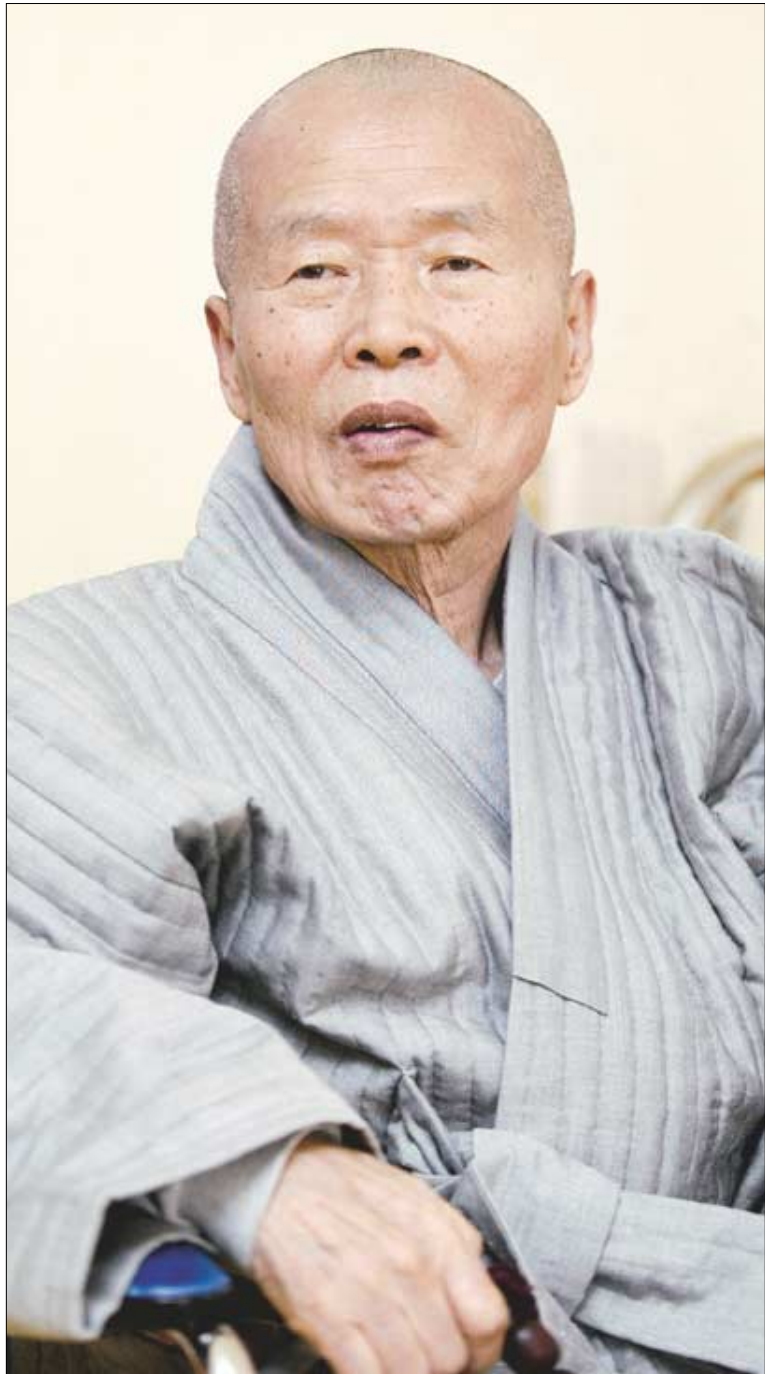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대용 스님은 향림당(香林堂) 대용(大用) 스님은 1929년 일본 경도에서 태어났다.

43년 일본 북강현 향순심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5년 서울 제신학교 우편과를 수료했다. 대구시 중앙우체국 사무원으로 재직 중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일등상사로 7년 만기 제대했다.

58년 예산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62년 청암사 수도암을 시작으로 부안 월명암, 문경 김용사,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경북 봉화 각화사, 지리산 벽송사, 도봉산 망월사 등에서 정진했다.

76년 충남 보은 범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94년 지리산 정각사에서 안거 후 향천사 천불선원에서 지금까지 정진 하고 있다.



출가 후 ‘보따리 싸는 재미’로 사셨다는 대용 스님은 평생 선방에서 본래면목을 참구해 왔다. 지금 병중이지만 스님은 지금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때라고 말한다.

### 상좌 한 명 두지 않고 주지 소임 한 번 살지 않은 채

### 반세기 대중선방서 정진... “남과 시비하지 말고 사세오”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 · 야간적외선카메라2대 = 200만원, 카메라한대추가시 + 40만

“보안은 예방”

**3대 만족**  
품질, 가격, 서비스

**사업내용**  
· CCTV 판매 및 설치 공사  
· 청소, 경비용역  
· 방범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

**시공사찰**  
· 대성사  
· 송림사  
· 도현사

**A1 에이원** 현대불교신문사대전, 충북지사 지사장 해철 합장  
(주)에이원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불교평론> 2005년 겨울호(통권 2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황우석 사태를 보는 불교의 눈' (조성택)을 비롯한 흥미있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웰빙 시대의 갈증'**

웰빙 시대에 왜 웰다임을 말하는가 (오전택)  
붓다의 죽음 (안양규)  
선사들의 죽음과 열반 (김영숙)  
부활, '웰다임'의 한 해석 (이찬수)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강진표)  
근사체험(近死體驗)이란 무엇인가? (최준식)

**논단**

울장은 금서인가 (마성 스님)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동불교 (김광석)  
일본 불교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국불교에의 시사 (박경준)  
공안 언어의 사회적 담론의 가능성에 대한 한 상념 (박진영)  
조선전기 관세음보살의 응신묘법의 도상과 그 창조적 재현 (강소연)  
탁남한의 프림리치 전수행 고찰 (김은중)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센터(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 1만원씩 연간 4만원이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전화확인 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 매거진 불교평론에 참신한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명목률과 주목율을 확보하고 있는 불교평론에서 발행하는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효과적인 저렴한 광고료로 최대의 효과를 보장합니다.

◆ 광고문의 : 불교평론 광고기획부  
◆ 전화 : 02)2004-8214-5 / 팩스 : 02)737-0686  
◆ e-mail : jkbl152@empal.com

■ 불교평론 구독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1 / 팩스 02)737-0697

# 순간순간 결제하며 마음 한곳에

## 대웅 스님의 가르침

▲ 현대불교신문에서 온 기자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무슨 물건이 이렇게 절을 합니까?  
▲ 박재완, 여수형입니다.  
- 박재완, 여수형은 어머니 아버지가 준 물건이지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몸 받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내놔봐라' 하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면목이란 무엇인가 일념으로 참구해야 합니다.  
▲ 스님은 출가 후 주지 등의 소임을 한번도 맡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 소임을 살거나 사중(寺中)일을 받든가 하면 그 일에 꼬달려서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옛날 한 스님께서 "차라리 백년의 운수객(雲水客)이 될지언정 하루도 주지로 살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도(道)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였거늘, 하물며 말세의 근기가 약한 범부(凡夫)이겠습니까?  
▲ 그럼 대중 포교나 설법도 하지 않으셨나요?  
- 백 사람의 지식인이 한 사람의 각성만 못합니다. 한 물건이 사람 사람에게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없고 위로는 하늘을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검기로는 철쭉보다 더 검은데 행하고 높고 말하고, 고요하게 생활하는데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 중 일하는 것 빼고 잠자는 것 빼고 그레도 시간이 남으니 정신을 한 군데로 모으는 공부를 해서 이 알 수 없는 것을 참구하는데,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 어렵고 힘들지만 물 흘러가듯 자꾸만 생각해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 정신 통일하는 법을 자연히 알 수 있습니다. 냉수는 우리가 매일 먹지만 담담해서 질리지 않습니다. 설탕물이나 꿀물은 처음에는 달고 맛있지만 자꾸 먹으면 질려서 먹지 못합니다. 참선 공부도 이 냉수 먹는 도리와 같습니다.  
▲ 어제는 불을 시샘하는 촛선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 눈은 햇빛만 보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눈은 그렇게 녹지만, 그대들의 마음에 갠 티끌은 누가 쓸어버릴 것입니까? 부지런히 정진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 지난 동안거 결제 때 대중들에게 어떤 법문(法門)을 주셨습니까?  
- 수좌들에게 항상 결제한다는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면 어느 때 이르러 보면 결제나 해제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결제와 더불어 신도들이 100일 기도를 동참하는 날이기도 해, 신도들에게 '늘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일념으로 기도하면 정신세계가 멋쟁이가 되고 육신이 아름다워질 것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안거다 100일 기도다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결제를 합니다. 석 달도 좋고 삼년도 좋지만 가장 절실한 결제는 '순간결제'가 으뜸입니다. 마음이 화두를 놓치고 해이해졌을 때 다시 화두를 잡고 순간순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순간결제가 으뜸인 것입니다.  
▲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 나의 주인공은 편안하지만 사대(四大)로 생긴 이 색신(色身)은 허물어져 가는 중입니다. 몸으로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능히 참고, 마음으로는 복잡한 것이 있어도 다 쉬고, 외부의 인연을 일체 끊어버리고 그리고서 공부를 시작하는 이때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허공도 늙는다는데, 이 몸뚱이 어찌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사(生死)의 주인공은 늙는대거나 아프다거나 죽는다는 것이 없어 여여(如如)한 자리입니다.  
▲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 무얼 하십니까?  
- 아무 것도 안합니다.  
▲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 본래면목을 찾고 있습니다.  
▲ 평생을 선방에서 정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본래면목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 찾기가 벌써 찾아야만 찾고, 찾고 계속 찾아야 합니다. 기자도 자기의 본래면목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삼천 년 전 부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을 하며 얻은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 지위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바를 버리고 얻은 바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버리고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얻고 내가 나를 찾았



2005년 황선원 천불선원 동안거를 결제하고 대웅 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이 찍은 기념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는 황선사 주지 법광 스님.

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는 자비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 사회가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갑니다.  
- 제가 석굴암에 10여년 정도 기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시끄럽게 마련인가 봅니다. 신라시대 때 도성이 어지러워 임금의 시름을 달래려고 시내에 나왔다가 누더기 입을 총담 스님을 만났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하고 묻자 총담 스님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살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 깨달음은 고통이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은 귀한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왕위도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얻으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는 남에게 저주는 것입니다. 가득한 그릇에는 담을 수 없지만 비어 있는 그릇에는 담을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배우는 것이나 부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는 것이 옳은 불교요, 옳은 불교를 찾는 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성품을 봤다는 말인데, 내가 견성했다느니 인가를 받았느니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좋은 악은 선전하지 않아도 그 악을 찾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견성한 사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계(法界)의 본성(本性)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와 인생을 구성하는 진리의 본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본성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다 독립적이며 고정불변한 것은 없으며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연기(緣起)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상(無常)하고 무아(無我)한 것이 세계와 우주와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참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명(無明)에 의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 때문에 지옥도 극락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해탈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자 깨달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운명은 그 행위에 따라 귀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춘래존풍(春來春風)이란 백초일색(百草一色)이라, 승속원융(僧俗圓融)하여 일월왕래(日月往來)다. 불이와 불바람이 불변, 백가지 풀이 일색이요, 승속이 원융하여 해와 달이 스스로 뜨고 지더라.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6>



### 사람 다스리는 또하나의 기술-칭찬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데다 인구수도 적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품성이 너무나 거칠고 사나워서 온갖 나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하목건련이 부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교화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나라로 들어가 목건련은 이내 자신이 배워온 진리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십시오. 나쁜 일을 저지르면 그 죄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는커녕 좋은 말을 들려주는 그 때 때리고 오히려 더 심하게 욕을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목건련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리불이 말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화시키려면 똑똑한 혀 하지 말고 못난 체 하면서 가르침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역시 사리불도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나라

"당신은 기백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자신들은 원래 포악하고 못된 백성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그때까지 몰랐던 자신들의 장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봄눈 녹듯 풀어졌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문수사리보살을 칭찬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못된 사람이라고 지적만 하려 들었는데 이 분은 어쩌면 그리도 우리 속마음을 잘 알아주실까? 이 분의 말씀을 들으면 참 행복해."  
사람들은 그제야 부처님이라는 성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했고 서둘러 그분께 귀의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그 흥악하고 무거운 죄라는 것이 대체 어디 있는가?" (구잡비유경)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아무도 입을

## 포악한 백성들 교화하려간 10대 제자 가르침 들려주려 애썼으나 줄줄이 실패

로 들어가서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주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하가삼을 비롯한 제자들이 잇따라 차례로 갔으나 역시 오히려 무시와 비난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딱이 높은 스님들이 실패를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아리한 한 사람을 욱하여도 그 죄가 작지 않는데 이토록 많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거슬렀으니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흉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들의 가르침을 저버린 죄가 무겁다고는 하지만 보살이 보면 그들은 모두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에 문수사리를 보내어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들어가 문수사리보살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당신은 참 용감합니다."  
"당신은 참 강건한 몸을 갖추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에게 잘 하는군요."

때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슬쩍 돌려보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참 재능도 많고 기발하고 아이디어도 신선해. 그런데 너희들의 그 신선하고 힘이 넘치는 세계를 구세대와 공감하려면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까?"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잠잠하던 아이들에게서 대답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할아버지들에게 대화를 걸어야 한다."  
"그 분들도 우리 같은 신세대를 지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세대만의 문화를 몰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문수사리보살이 그들에게 없던 장점을 세삼 만들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 중생은 내가 가르쳐야만 해"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뭔가가 있다"는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본 것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내면으로 만드는 아주 멋진 방법, 그것은 바로 '칭찬'이라는 것을 경전에서다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 이미형(통곡역경원 역경위원)

# 天一氣功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재복 회장**이 오대산에서 만 3년간 매일 100리(40km)씩 걸으면서 얻은 **행선법의 의미와 진공 호흡법의 깊은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줄줄 어느나?"** 세상에는 숨 줄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1단계수련 : 3박 4일 코 - 스**  
<매일 1회 실시-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내가 병드는 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재를 많이 지낸 후 병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맴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병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친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지리)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분리형

일체형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 정 품 )**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조종 및 조종 길에대**

**연 등 ( 정 품 )**  
법당형(정단형),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불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